[별첨6]

사 업 보 고 서

(2020년도)

1-1. 사 업 개 황

2020년은 제주감귤농협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로서『조합원 소득 증대 및 고객만족 경영 실현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농협 구현!』을 비전(VISION 2025)으로 선정하여 「감귤생산유통혁신」「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도지원체계 구축」「지역밀착형 상호금융으로 혁신」「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강화」「경영혁신운동 전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코로나19라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조직역량 집중을 통한 농가소득 1억원을 달성하고자 노력한 한해였다.

사업부분별 세부 경영방침으로는 교육지원사업부분은 '조합원에 대한 농협이념교육 활성화 및 전문 농업인 육성' '생산출하조직을 중심으로 품종별, 지역별, 단계별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 판매사업부분은 '산지유통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판매사업 활성화 및 유통효율 증진' '품종별 공선출하회 조직 확대를 통한 계통출하 경쟁력 강화' 구매사업부분은 '농약 맞춤형 처방 강화로 농업인 서비스 기능 확대' '농자재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농자재가격 안정 도모' 신용사업부분은 '자금조달 확대를 통한 유동성리스크 강화' '저원가성 예금비중 확대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 확보'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실익보험 추진 확대' '금융전문성 강화 위한 조직,인력 전문역량 강화' 경영관리부분은 '미래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경영구조 내실화 실현' '체계적인 경영관리 및 손익중심의 목표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저비용, 고효율 경영시스템 구축' '자기자본 증대 및 합리적인 고정투자로 운영 리스크 관리' 등으로 하여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였다.

제주감귤농협의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지원사업으로서 명품감귤 생산기반 구축 및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한『브랜드감귤대학』을 통하여 감귤농업 전문지도사를 매년 양성하고 있고, 2020년에는 50명(제15기)이 수료하여 총 724명의 감귤농업 전문지도사를 배출하였다. 제주감귤농협은 매년 수료생들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선도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감귤 묘목·육묘사업을 통하여 2020년에는 농업인에게 84,987本의 우수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감귤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고객가치 실현 및 고객만족을 위한 2020년 서비스엔이모션 고객만족도 조사(CSI) 연평균 점수 부분에서 연동지점 전국 1위, 서귀포시지점 전국 4위, 본점 전국5위를 달성하였고, 표준 응대형 부문에서 연동지점이 전국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고객만족도조사 대상 사무소 전체 지점이 최상위 등급인 S등급

에 선정되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발휘 된 한해였다.

2020년 결산결과를 보면 총 경제사업 실적은 2,735억원으로 계획대비 101.4% 달성, 전년대비 13.0% 성장하였다. 사업부분별로 살펴보면, 판매사업은 노지감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실적 감소에도, 하우스감귤 전년대비 41.5% 성장, 만감류 전년대비 31.3%성장, 기타품목은 전년대비 76.5% 성장으로 2,177억원 달성하여 계획대비 104.0% 달성, 전년대비 16.9%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제주감귤농협 60년 동안에 최고의 실적이며 2020년에는 전국 농협 중에서 판매사업 매출액 1위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우리농협 공동브랜드인 “불로초”는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여 소비자를 통해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과수부문에서 11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어 퍼스트클래스를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과수부분 최고의 명품브랜드로서 진가를 다시 한 번 공인받았다. 이는 11개의 품목으로 구성된 공선회원제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시장 요구 변화에 대응한 결과 이다.

구매사업은 감귤농가의 실익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인 영농정보 안내 및 시기별 영농교육을 통하여 농약사업은 199억원으로 전년대비 8.0% 성장하여 제주감귤농협 60년 동안에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비료는 감귤 주 생육시기 원예용 비료 공급확대 및 밭작물 원예용 비료 공급 확대로 매출액 78억원 달성, 전년대비 21.1% 성장하여 전국농협 중 성장률 1위를 달성하였다. 반면에 FTA감귤비가림하우스시설 사업량 감소와 포장재가공사업소의 폐쇄의 결과로 시설원예자재 및 수탁사업에서는 전년대비 사업실적이 역조되었지만 구매사업실적은 393억원으로 계획대비 97.3%달성, 전년대비 4.3% 성장하였다.

마트사업은 일출봉관광체험타운사업소의 하나로마트가 폐업하였음에도, 매주 목요일 “소잡는 날” 행사와 더불어 조합원과 고객을 위한 행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대비 71.1% 달성, 전년대비 5.3% 성장하였다. 마트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고객 니즈를 파악한 상품 구성, 진열 등 사업 확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떠안은 한해였다.

이용사업실적은 79억원으로 계획대비 80.0% 달성, 전년대비 7.8% 성장하였다. 이는 판매사업의 확대와 소포장 작업으로의 상품 구성 변화에 따른 작업물량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제주감귤농협은 2019년부터 정부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 호응의 일환으로 시작한 노인인력개발원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시니어형 일자리 창출 노력하여왔고,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확대 추진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였다.

신용사업부분을 살펴보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대내외 상호금융 환경 변화 속에

서 ‘질적 성장’ 추진으로 경영내실화 및 수익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밀착형 상호금융으로의 혁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한해였다. 신용사업 주요 실적으로는 예수금 잔액 6,660억원으로 계획대비 99.1%달성, 전년대비 4.8% 성장하였다. 예수금 평잔은 6,427억원으로 사업계획대비 96.9% 달성, 전년대비 5.9% 성장하였다. 상호금융대출금 잔액은 6,288억원으로 계획대비 96.7% 달성, 전년대비 4.5% 성장하였다. 상호금융대출금 평잔은 5,986억원으로 계획대비 95.6%달성, 전년대비 0.7% 성장하였다. 어려운 국내의 농업경제상황에서 농업인에게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성 대출금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고, 농어촌진흥기금은 대출잔액 1,160억원으로 도내 농축협 중 점유비 1위를 차지하였고, 감귤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시된 상호금융 영농우대특별저리대출을 적극 추진하여 연말기준 총 잔액 11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로 협동조합 정체성 제고 및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 농업인금융지원 우수농협, 2020년 FTA기금 지원 우수 농협, 2020년 상반기 저원가성예금 추진 프로모션 평가 2위에 선정되었다.

보험료는 182억원으로 사업계획대비 94.9% 달성, 전년대비 △0.4% 역조되었다. 농업인의 자연재해 및 농작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감귤) 3,774건 가입 추진 하였고, 가입 농업인 중 2,149명 2,507건에 대하여 63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경감 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로서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우수농협으로 선정되어 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순일반보험 프로모션 추진 우수농협 1위를 달성하는 등 비이자 수익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경영관리부분을 보면 우리농협 매출총이익은 410억원으로 계획대비 99.7% 달성, 전년대비 7.3% 성장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5억원으로 계획대비 82.9% 달성, 전년대비 4.8% 성장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 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으로 예대마진율의 감소로 인한 신용사업 부분의 매출총이익 감소, 어려워진 경제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의 연체채권 증가로 인한 연체 비율 증가 등의 악재 속에서도 품목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당기순이익 성장을 이루어내 제주감귤농협의 역량을확인할 수 있는 한해였다.

2020년 결산에 있어 충당금 부분인 신용대손충당금, 일반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충당금은 법정 비율 이상 적립하였고, 조합경영기반인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지속경영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협법상 이익잉여금의 50%이상(법적적립금 10%, 사업준비금 20%, 차기이월금 20%이상)을 내부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내부 적립하였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당금의 확실한 적립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앞으로 제주감귤농협은『감귤농업인과 함께한 60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희망찬 농협!』을 기치로 내걸고 감귤전문 품목농협으로써 끊임없는 혁신으로 최

고의 전문농협 구현,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농협 구현, 조합원 고객이 무한 신뢰하는 농협 구현, 기본과 원칙에 의한 윤리·투명경영을 추구하는 농협으로서 제2의 감귤산업 전성기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품목농협으로서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